

AfDB, 아프리카 인프라사업 민간참여 확대 방안 제시

1. 아프리카 경제성장 추이 및 전망

- (경제성장) 아프리카는 '16년 2.2%, '17년 3.6%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, '18, '19년 각각 4.1% 경제성장 전망
 - 이는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상품 가격 회복, 글로벌 경기 개선, 역내 내수 호조, 수입 대체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인
- (하방 요인) 원자재 가격 하락, 일부 국가의 불안정한 정치상황 등이 향후 경제성장 저해 요인
 - 美 셰일오일·가스 생산으로 유가 상승 제한, 美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감소, 원자재 수요하락 등의 리스크 존재

2.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현황

- (인프라 개발 수요) 전력, 수자원·위생, 교통, ICT 등 4개 주요 분야에 '16년부터 10년간 매년 약 1,300~1,700억불의 투자 필요
 - AfDB는 4개 분야에 대해 2025년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투자 규모를 측정하였으며, 그 중 수자원·위생 분야의 소요비용이 최대

< 아프리카 분야별 인프라 개발수요 >

단위 : 억불

분야	2025년 개발목표	연 소요비용
전력	100% 도시 전력화, 95% 농촌 전력화	350~500
수자원·위생	100% 수자원 및 위생시설 공급	560~660
ICT	이동통신 서비스가능 지역내 인구의 50%, 인터넷 접속가구비율 10%	40~70
교통	80% 유지·보수, 20% 개선·신설	350~470
합계		1,300~1,700

- (인프라 금융 현황) '16년 인프라 투자액은 중국의 투자 급감으로 최근 5년간 최저치인 625억불 기록(아프리카 정부는 263억불 투자)
 - 지역별로는 서아프리카(26.1%), 동아프리카(21.0%), 북아프리카(20.7%), 분야별로는 교통(39.2%), 에너지(31.9%), 수자원·위생(16.9%) 순

- 투자 국가별로는 중국(64억불), 프랑스(28억불), 일본(19억불) 순이며, 우리나라는 약 4억불을 4개 프로젝트에 투자

□ (개발재원 지원 현황) 주요 공여국과 MDB는 사업준비단계 컨설팅, 기술적 지원, 고위험사업 초기자금 대출, 현지통화채권 보증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쳐 금융·비금융 지원 제공

- (EAIF) 유럽 4개국과 KfW, FMO 등 2개 DFI가 출자하여 조성한 펀드로, '02년 설립 이후 67개 민간 인프라사업에 약 160억불 투자
- (Power Africa Initiative) 美정부 주도로 공공기관, MDB, 상업금융, 에너지기업 등이 참여하는 전력인프라 개발계획으로, '17.8월까지 540억불이 조성되었고 80개 전력사업에 약 145억불 지원

3. 인프라사업 민간참여(PPI) 확대 방안

□ (PPP 확대) '16년에는 PPP사업이 전년대비 58% 급감하여 AfDB는 이를 늘리기 위해 브라운필드*로도 확대할 것을 제안

* 운영중인 인프라 시설을 보수·확장하거나 운영효율을 개선하는 것으로 완공 혹은 사업성이 검증된 후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음

- MDB는 민간참여가 가능한 브라운필드 사업을 발굴하고 아프리카 정부의 PPP 도입에 필요한 법·제도적 체계 마련을 지원해야 함

□ (민간금융 참여 유도) 다자기구들은 지분투자, 보증·보험, 후순위채 투자를 통한 신용보강 등을 활용하여 민간금융을 적극 유치

- (IFC 'Managed Co-lending Portfolio Program') IFC가 기관투자자들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개도국 인프라사업의 후순위채에 투자하는 신디케이트 대출 플랫폼으로 민간금융을 선순위투자자로 동원
- (Africa50 Infrastructure Fund) AfDB와 아프리카 25개국 정부가 '15년 설립한 펀드로, 전력, 교통 인프라사업에 소액 전략적투자자로 참여하여 사업개발 지원 및 민간금융 참여 유도

□ (신규 금융상품 도입) 한정된 공공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민간부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 제시

- **(Project Puttable Bonds)** 사업이 완공 또는 일정 금융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MDB 앞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민간투자자에 부여
 - 장기채 발행으로 쏘 사업기간동안 리파이낸싱 리스크를 없애고, 문제 발생 시 MDB가 개입하여 해결 가능
- **(Debenture Structure)** 인프라 건설·운영사업자인 민간 SPV가 발행한 채권을 정부가 MDB 대출을 받아 매수하고, 완공·시운전 단계 리스크 감소 후 시장에 채권을 매도하여 MDB 대출 상환
 - MDB는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사업 계획, 금융 구조화를 지원하며, 최종적으로는 모든 금융이 민간에 귀결되어 운영효율성이 극대화되고 개도국 자본시장 발전 도모 가능

4. 시사점

- 아프리카는 매년 4% 이상의 경제성장과 1,500억불 내외의 인프라 수요가 예상되는 바, 우리나라 ODA도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지속 확대할 필요
 - '16년 우리나라 ODA는 아시아 50%, 아프리카 26%, 아메리카 9% 순이었으며, 아프리카 지원 비중은 '13년 20% 이후 지속 증가
- 양·다자원조기관들은 개발재원의 촉매 역할과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동원할 필요
 - AfDB는 IFC의 1불 투자가 사업 신용보강을 통해 추가적인 8~10불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촉매 역할 강조
- 아프리카는 타 지역에 비해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법·제도적 체계가 미비하므로 원조기관들의 지속적인 기술협력 지원이 필요
 - 아프리카는 PPP사업 도입·시행을 위한 법령 마련, 취약한 금융 환경 개선 등이 시급

자 료 : African Economic Outlook 2018, African Development Bank

작 성 : 심사역 윤 소 담, sodamyun@koreaexim.go.kr